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24일 일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24호

현실이 요청하는 반전반미투쟁

구국의 소리 방송 ≪청년학생들과 함께≫ - 주체 91, 2월 20일~22일

미국의 대북강경책동과 북침전쟁을 위한 무력증강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부시가 ≪연두교서≫라는데서 ≪악의 축≫발언으로 이북을 자극한데 이어 워싱턴의 고위관리들이 연일 있지도 않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수출설을 내돌리며 전력증강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합 및 합동전역미사일작전기구라는 걸 만들어낸 것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얼마전 주한미군은 미사일방어체제를 전문적으로 맡아 수행하는 연합 및 합동전역미사일작전기구라는 걸 만들어내고 이북을 상대로 엄중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부호전세력들이 함께 가담해 미국의 전쟁책동에 발을 맞춤으로써 남북관계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미공군 계간지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이 최근 전역미사일방어체제실현을 위한 본보기로 되고 있는 기구창설을 완료했다. 이 기구창설에 한국군도 참가했다.≫고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후 더 이상 존재명분이 없어진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설을 계속 강변하면서 전력증강과 전쟁책동에 광분하던 미국이 이번엔 연합 및 합동전역미사일작전기구라는 걸 만들어낸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한반도에서 패권적 지위와 영구적 지배력을 공고화하기 위한데 있는 겁니다.

미국은 저들의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북의 미사일위협론을 떠들면서 이 땅에 요격미사일을 적재한 이지스함과 요격미사일레이다를 배치하려 하고 있으며 오산, 평택 등지의 땅을 미군기지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설된 연합 및 합동전역미사일작전기구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이 사실상 완성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걸 잘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할수 없는 건 미사일방어체제에 참가할 계획이 없다고 하던 군당국이 민중들을 기만하고 비밀리에 이 기구창설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구창설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군당국이 그동안 민중을 상대로 완전한 거짓선전을 해왔다는 걸 잘알수 있습니다.

어제는 외세에 추종한 비상경계조치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결렬시키고 오늘은 외세와 야합해 연합 및 합동전역미사일작전기구에 가담해 나섬으로써 동족의 머리위에 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고 하고 있으니 과연 당국에 통일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당국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하자고 한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와 외세의존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7천만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겁니다.

얼마전 한총련의장이 연합 및 합동전역미사일작전기구창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와 같이 지금 경향각지에서 미국과 군부호전세력들의 엄중한 전쟁발발책동에 항의한 민중의 목소리가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미국과 군부당국이 우리 민중의 항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분별한 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리는 여건에서 핵전쟁의 참화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족의 생사존망이 엄중히 위협당하는 이 시각 현실은 우리 청년학생들로 하여금 새해벽두부터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북침전쟁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반전반미항전에 과감히 나설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미국과 군부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책동을 결코 앉아서 보고만 있지 말아야 하며 민족자주,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전반미, 조국통일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야 할겁니다.

네, 오늘 반전반미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미국에 대한 환상과 공포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미국의 허장성세앞에서 주눅이 들고 이른바 초대국에 대한 환상과 공포에 사로잡히면 차례올 것은 패배주의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무궁무진한 주체적 역량을 믿는 믿음 그리고 민족의 자주역량을 고수, 수행하면 그 어떤 강대한 제국주의세력이라도 능히 꺾을수 있다는 자신감과 필승불패의 각오, 이것이야말로 반미투쟁의 승리를 좌우하는 사상적 요인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미국이 지금 마치 제왕처럼 으시대지만 이미 그의 강대성의 신화는 세계의 면전에서 산산조각난지가 오래죠. 그리고 부시의 이번 방한도 선군의 기치 드높이 전진하는 이북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살길을 찾아보려는데서 비롯된 것이겠죠.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허장성세뒤에 감춰져 있는 미국의 약점을 꿰뚫어보고 반부시반미 반전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할겁니다.

구국의 소리 방송

1 현실이 요청하는 반전반미투쟁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2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2)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

세기와 더불어

4 3장 3절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2)

칭송

6 장군님과 제대군인 / 선군정치 받드세
6 **김정일**총비서의 업적은 세계를 경탄시키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7 미국의 전쟁책동 투쟁으로 분쇄하자
7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2월 22일
8 더욱 고조된 부시방한반대투쟁
8 인면수심의 인간
9 자주는 민족의 출로
9 자주권은 평화의 담보

광고

15 PDF자료집 ≪부시의 대북강경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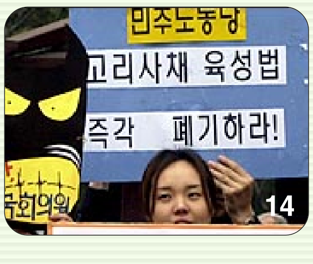
조선중앙통신

10 선군시대 인간사랑의 미풍을 더 활짝 꽃 피우자 – 노동신문사설 2월 21일
11 강성대국건설에서 청년들이 돌격대가 되자 – 노동신문사설 2월 22일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2 미제의 호전분자들의 새전쟁도발책동과 그 위험성

아리랑뉴스



13 용산미군기지 반환촉구 4차 시민대회
13 한총련, 미 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무산
13 이북 ≪미국이야말로 악의 축≫
14 이자제한법 부활없인 사채횡포를 막을 수 없다
14 이총재 수행의원들의 뉴욕 술판 논란
14 고이즈미 6개월 버티기 힘들 듯

운동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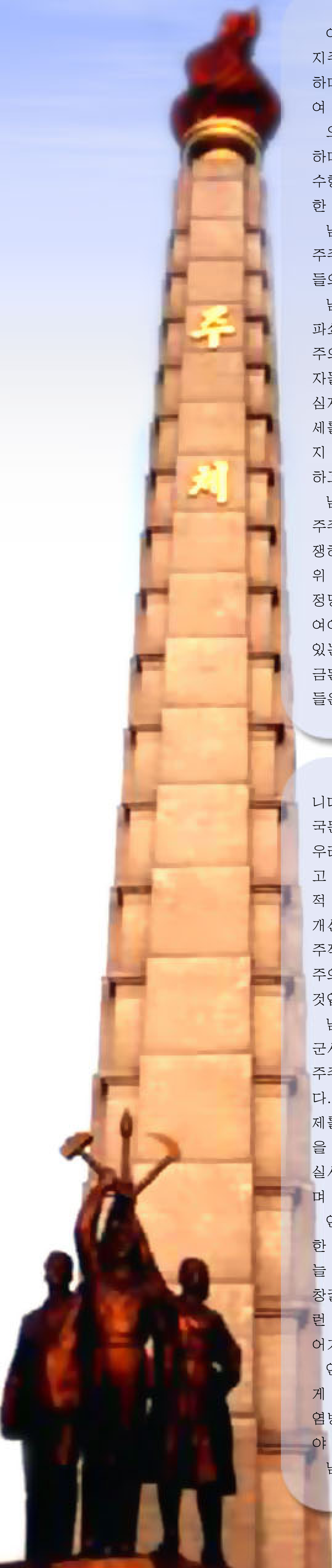
15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7)

조국통일3대헌장

16 민족대단결과 연방제통일 방식에 관한 논의 (2)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2)

조선노동당 제 4차 대회 / 1961년 9월



이와 함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사회정치생활을 민주화하며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민주주의개혁을 수행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박한 요구입니다.

남조선군사정권은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까지도 완전히 박탈하고 인민들의 수족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군사통치자들은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구실 밑에 수많은 애국자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신문기자들에게 미제의 철거와 외세를 배제한 통일을 주장하였다는 단 한 가지 리유로 사형을 언도하는 횡포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파쑈독재를 분쇄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시위 및 파업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하며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치 자유가 회복되여야 합니다. 군사정권에 의하여 감행되고 있는 야수적 태도는 즉시 중지되고 체포구금된 모든 애국적 정치범들과 무고한 주민들은 즉시 석방되여야 하며 미제의 특무, 민족반역자들이 처단되여야 합니다.

토지문제의 해결은 남조선에서 당면한 민주주의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토지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력을 봉건적 질곡으로부터 해방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인구의 7할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 대중을 기아와 빈궁에서 구출할 수 없으며 그들의 생활을 안착시킬 수 없습니다.

남조선농민들은 일치 단결하여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을 실시하며 봉건적 착취 제도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토지는 응당 밭갈이하는 농민들의 소유로 되여야 합니다.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또는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줌으로써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적 조국통일의 위업에 기여할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의 토지의 대가를 물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강점군대에 의하여 군용지로 략탈된 토지는 즉시 농민들에게 반환되여야 합니다.

철저한 민주주의적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동시에 새 땅을 대대적으로 개간하여 땅이 적은 농민들과 리농한 실업자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농민들에 대한 각종 고리대 착취는 금지되여야 하며 농민들이 진 토지 채무와 빈농민들의 일체 부채는 폐기되여야 합니다.

조선농촌에서 봉건적 관계의 청산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길을 열어 주며 농민생활을 개선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민족공업의 발전에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주적 민족공업이 없이는 인민의 복리증진도, 국가의 독립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인 공장, 광산, 철도, 운수 및 은행을 몰수하여 국유화함으로써 외래 제국주의와 국내매국세력의 강제적 토대를 분쇄하고 민족공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가들의 경리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원료와 자금 및 판로를 보장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발전에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8시간 로동제와 사회보험제의 실시, 임금 인상 및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수백만의 실업자들에게 시급히 일자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로동자의 임금은 우선 최저생활비의 수준에까지 올려야 합니다. 또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며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을 현저히 경감하고 각종 가렴잡세를 철폐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에 얼마 되지 않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일자리가 없으며 그들에게는 과학연구의 조건과 자유가 보장되여 있지 않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미국문화가 인민의 의식을 중독시키고 있으며 우리의 고유한 민족 문화는 짓밟혀 조락되고 있습니다. 과학자, 문화 예술인들은 반동적 미국문화의 침습에 반대하고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인민의 리익에 복무하는 민주주의적 민족문화의 건설에 용감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의 청년, 학생, 지식인들은 학원의 군사화와 모리화를 반대하며 교육제도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함으로써 학령아동들의 완전취학을 보장하여야 하며 성인교육제도를 광범히 실시하여 근로자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며 문맹을 퇴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민생활의 무참한 령락과 보건사업에 대한 집권자들의 범죄적 무관심의 결과로 오늘 남조선에서는 각종 전염병과 만성질환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 녀성들에게 남성과 평등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모든 생활을 민주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녀성들을 천대와 멸시를 받는 굴욕적 처지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히 하며 녀성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며 그들을 사회적 로동에 광범히 참가시키며 그들에게 동일한 로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의 원칙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70만의 고용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통수권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있으며 그 지휘자는 미국장군들입니다. 조선군대의 절대 다수는 군복을 입은 농민이며 로동자입니다. 그들은 미제의 앞잡이들에 의하여 ≪국군≫에 강제로 끌려나온 근로청년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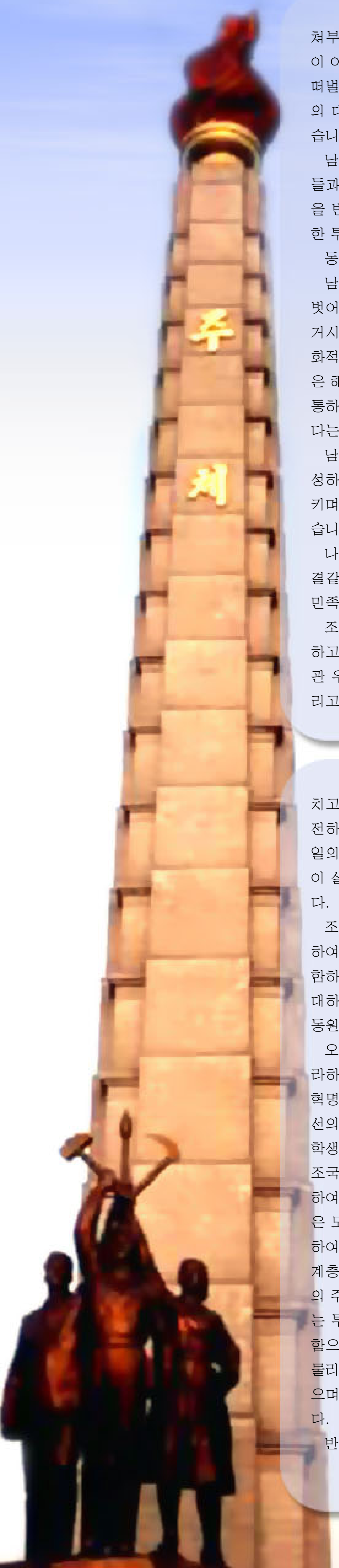
남조선군대는 북조선에 있는 자기들의 동포들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눌 것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자유와 생존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자기들의 부모 형제들에게 총탄을 퍼부을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는 ≪국군≫의 원쑤가 없으며 로동자, 농민의 군대인 인민군대는 남조선에 있는 자기들의 형제들과 싸우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국군≫의 진정한 원쑤는 우리의 강토를 강점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이며 그 앞잡이들입니다.

남조선 군대는 인민의 애국적 운동과 민주주의적 운동을 탄압하며 전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맹목적인 도구로 되는 것을 그만 두고 외래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족의 군대로, 인민의 군대로 되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수중으로부터 ≪국군≫의 통수권을 탈환하여야 하며 반인민적인 병역제를 철폐하고 파쑈적 군사 제도를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하여야 합니다.

≪국군≫ 병사들과 하급 장교들은 조선 사람끼리 서로 싸우게 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흉책에 빠지지 말고 인민의 편으로 돌아서야 하며 미국 지휘관들과 ≪국군≫ 상층반역 도당들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민들은 오직 자기 자신들의 투쟁에 의해서만 자유와 해방을 전취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외래 제국주의침략세력과 국내착취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영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오농민전쟁, 3 · 1운동, 6 · 10만세사건, 광주학생사건을 비롯하여 인민대중의 해방투쟁은 면면히 계속되여 왔으며 이러한 투쟁들은 억압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광범한 인민대중이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 일어날 때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아성이라도 능히

조선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명백합니다. 당은 시종 일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조선인민은 자주적으로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쳐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가장 공고한 반공정권이라고 떠벌이던 리승만정권도 바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에 의하여 전복되고야 말았습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용감히 일어서야 합니다.

동지들!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참혹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파쑈 독재를 전복하고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해방 후 16년 간에 걸치는 고난의 력사를 통하여 남북이 분리되여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체험하였습니다.

남북조전의 힘을 합치며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 외에 남조선에서 경제를 부흥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라의 평화적 통일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잠시도 지연시킬 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

조선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명백합니다. 당은 시종 일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조선인민은 자주적으로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전조선 자유선거를 통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인민의 단독선거로써는 결코 사태를 개변할 수 없습니다. 북반부 인민들과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 인민들이 다 같이 참가하는 전조선적인 선거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으며 오직 이러한 정부를 수립함으로써만 남조선인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얻을 수 있으며 자기들의 생활처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거가 반드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써 실시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인민이 자기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우리 민족의 내부적 문제입니다. 제국주의침략군대에 의하여 국토가 강점되고 있으며 외세의 간섭이 허용되고 있는 조건하에서는 인민들의 자유의사의 표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조선으로부터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일체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은 조선에서 진정한 자유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이와 동시에 남북조선 전 지역에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합니다.

남북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은 어떠한 구속도 없이 그들의 정강과 정치적 견해를 인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나라의 어느 지역에서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조건들이 보장되였을 때에만 조선인민은 진정한 자유선거에 의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평화적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방안은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것입니다. 전체 조선인민이 우리의 통일방안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으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그것을 찬동하고 있습니다. 오직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들에게 추종하는 매국적 반동세력만이 자유로운 남북총선거의 실시를 방해하고 있으며 평화적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인민들은 원쑤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남북총선거의 실시를 위한 투쟁에 용감히 나서야 합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미국침략군대의 철거를 요구하여,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이며 평화적인 조국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비록 간고하며 우여곡절을 거치고 있으나 대세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전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이 조국통일의 위대한 사변을 갈망하고 있으며 그것이 실현될 날은 더욱더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조선인민의 이 민족적 숙망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남북조선인민들의 모든 력량을 단합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동원하여야 합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모든 애국적 력량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혁명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구입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도시소부르죠아지, 청년학생, 지식인 그리고 민족부르죠아지까지도 조국의 분렬과 미제국주의식민지통치에 의하여 다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공통한 민족적 리해관계에 의하여 련결되여 있습니다. 이 모든 계급들과 계층들의 력량을 튼튼히 집결하여 조선인민의 주되는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남조선인민들은 공동의 원쑤를 물리치고 해방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로동계급의 령도 밑에 로동자, 농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로동자, 농민의 동맹은 통일전선의 정치적 및 사회적 기초로 되여야 할 것입니다.

로농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 학생, 지식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청년, 학생, 지식인들을 반미구국항쟁에 더욱 광범히 끌어들이며 그들로 하여금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대중과 밀접히 결합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치밑에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적 각계층들을 집결하여야 하며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주의력량과 북조선의 애국적 사회주의 력량과의 단합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과거를 묻지 않을 것이며 그의 계급적 처지와 사회적 지위, 정견과 신앙 여하를 불문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과거에 비록 조국과 인민 앞에 죄과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그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나선다면 우리는 그를 열렬히 환영할 것이며 조국이 통일된 후에도 끝까지 그를 포섭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국주의식민지체제가 붕괴되고 있는 시대, 민족해방혁명의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날 외래 침략자들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던 수억의 인민들이 식민주의의 명에를 벗어 던지고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제국주의의 억압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용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식민주의의 청산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조류입니다.

민족해방혁명의 이 위대한 시대에 오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이 어찌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감수할 수 있으며 민족적 모욕과 학대를 참을 수 있겠습니까?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단결하여 침략자들을 구축하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구국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전체 조선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미국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한다면 적들이 아무리 발악한다 하더라도 능히 그것을 타승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전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미제국주의는 조선에서 구축될 것이며 조국통일의 위업은 반드시 달성되고야 말 것입니다.

(끝)

1권 제3장

길림시절

1. 선진사상의 탐구
2. 상월선생
3.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4.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5. 단결의 시위
6.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7. 3부통합
8. 차광수가 찾은 길
9. 왕청문의 교훈
10. 철창속에서

3.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2)

나는 길림에서 학교를 다닐 때 강연도 많이 하였다. 어떤때에는 민족주의자들이 조직한 토론회에 가서도 연설을 하였다. 오동진, 리탁을 비롯한 정의부의 지도자들은 국치일(8월29일), 3월 1일, 단군탄생일(10월 3일) 등 주요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시내 교포들과 청소년학생들을 모여놓고 강연회와 토론회를 자주 조직하였다.

류길학우회의 성원들속에서는 리준의 방법이 옳은가, 안중근의 방법이 옳은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론쟁을 많이 하였다. 아무리 론쟁을 해도 결판이 나지 않으므로 우리는 려길학우회가 류길학우회로 개편된 그해 여름에 손정도네 례배당에 시내에 있는 조선인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그 문제를 토론에 붙이기까지 하였다. 그 토론회를 계기로 길림의 청소년들이 크게 각성되었다. 그들은 테로로써도 안되겠다. 청원으로써는 더구나 안되겠다. 강대국들이 도와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조선을 독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로가 탐구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그 당시 길림에서 진행된 토론회나 독서발표회에서는 조선혁명의 실천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론의되었다.

우리는 매해 5일 첫주 일요일을 ≪소년회날≫로 정하고 이날에 길림시내의 조선인청소년들과 그 부형들, 유지들과 독립운동자들이 참가하는 운동회도 열어 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청소년들을 단결시킨 다음 그들을 대중을 교양하고 계몽시키는 사업에 참가시키었다. 열살안팎의 소년회원들까지도 방학이면 강동, 륙대문, 신안툰, 대황구와 같은 주변농촌마을들에 나가 농민들의 일손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계몽하였다.

파쟁이 우심하던 길림에서 우리가 백가지 숨을 쉬던 청소년들을 한가지 숨을 쉬게 만들어놓은 것은 확실히 귀중한 소득이였고 체험이였다.

조선인길림소년회, 조선인류길학우회, 맑스-레닌주의독서조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길림일대에서는 ≪ㅌ,ㄷ≫성원들을 핵심으로 하는 새 세대의 혁명력량이 급속히 자라나게 되었다.

길림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총령사까지도 이것을 간파하고 우리의 활동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길림일대에서 새로운 혁명세력이 등장하여 그것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질겁한 총령사는 자기 나라 외무대신에게 보낸 공식보고문에서 그 대오가 조직력이 강하다는 것과 장차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게 될 위험성이 있으니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것을 경고 하였다.

일제는 내부가 통일되어있지 않고 사분오렬된 조선공산당의 종파집단이나 실행력과 군중에 대한 침투력이 미약한 민족주의세력보다도 파쟁과는 담을 쌓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인민대중속에 깊숙이 스며들어가 독자적인 방법으로 혁명의 길을 개척해가는 우리의 존재를 늘 무서워하였다.

길림에 새로운 운동선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만주각지는 물론, 국내와 중국관내에까지 퍼져갔다. 이 소문은 주로 길림에 와서 공부하던 류학생들과 그들의 부형들에 의하여 멀리까지 전파되었다.

우리의 운동선에 합류하려고 국내와 일본, 연해주, 만주각지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길림으로 모여들었다. 독립군에 관계했던 청년들, 일본에 가서 고학을 하던 청년들, 백파들과 싸우던 청년들,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광주폭동에 참가했던 청년들, 국민당반동들의 추격을 피해 여기저기 숨어다니던 청년들, 레닌의 숭배자, 손문의 숭배자, 루쏘의 숭배자 등 정견과 소속, 생활경로가 서로 다른 천태만상의 청년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김혁, 차광수, 김준, 채수항, 안붕 등도 그 시기에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교양하여 ≪ㅌ,ㄷ≫에 받아들이는 한편 조직을 시내 여러 학교들에 확대해나갔다.

그 과정에 우리는 ≪ㅌ,ㄷ≫보다 더 큰그릇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망라할 수 있는 조직을 내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1927년 8월 27일에 ≪ㅌ,ㄷ≫를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고 그 다음날 련이어 ≪ㅌ,ㄷ≫의 정수분자들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창립하였다. 반제청년동맹은 ≪ㅌ,ㄷ≫의 구호를 그대로 내세우고 그 강령을 그대로 계승한 반제적이고 대중적인 비합법적 청년조직이었다. 조직의 기본구성은 조선청년들이었으나 우리는 반제적 립장이 강한 중국청년들도 거기에 가입시키었다.

반제청년동맹은 광범한 반일청년대중을 혁명대렬에 묶어세우며 반일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하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 조직은 문광중학교, 길림제1중학교, 길림제5중학교, 길림사범학교, 길림녀자중학교, 길림법정대학을 비롯하여 조선학생들이 있는 시내의 모든 학교들에 다 들어갔으며 강동, 신안툰을 비롯한 길림주변의 농촌지역과 류하현, 화전현, 홍경현 일대에도 뿌리를 박았다. 조선청년들이 있는 곳이면 다 퍼지였다.

반제청년동맹에서는 얼마후부터 등사판으로 선전용

약왕묘안에 있는 지하실

자료까지 밀어냈다.

우리는 그때 청년들을 더 많이 결속하기 위하여 토요일이면 공부가 끝나기 바쁘게 주변농촌으로 나가군 하였다. 토요일에 공부가 끝나서 떠나면 일을 보고 일요일 오후에 돌아올수 있었다.

우리가 ≪ㅌ,ㄷ≫를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고 련이어 공청을 창립한 것은 반년 남짓한 사이 길림과 무송일대에서 청년학생들을 망라하는 합법, 비합법의 여러가지 대중조직들이 자라난 조건에서 그 모든 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령솔할 수 있는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새로운 전위조직을 내오는 것은 당시 청년운동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였다.

당시까지는 내가 어느 조직에나 다 관련되어있었기 때문에 나 개인의 활동을 통하여 조직들 호상간의 련계가 지어지군 하였다. 최창걸, 김원우, 계영춘과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청년공산주의자의 자격으로 학생청년조직들에 관계하였을 뿐이다.

새로운 전위조직을 내오는 것은 당시의 정세로 보아도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었다.

그때 일제는 만주침략을 서두르고 있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을 강화하면서 만주에서 반동군벌과 결탁하여 조중인민의 반일기세를 말살하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였다.

조선청년들은 일제와 중국의 반동군벌들을 반대하여 도처에서 투쟁에 궐기하였다. 이런 실정은 청년학생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고 통일적으로 장악하며 그들의 투쟁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갈수 있는 강력한 전위조직의 필요를 절실하게 제기하였다.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령도권쟁탈로 하여 사분오렬의 길을 걷고 있은 청년운동의 실태를 보아도 청년들을 분렬의 위기에서 구원하고 통일단결의

조선인길림소년회의 활동에 대한 일제의 비밀문건자료

길로 건전하게 이끌어갈 전위조직의 탄생은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앞에 단 하루도 지체시킬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과되었다.

당시 중국 동북지방에는 비합법적 청년조직으로서 만주조선공산주의청년단이 조직되었고 합법적 청년조직

으로서 남만주청년총동맹, 북만주청년총동맹, 동만주청년총동맹, 길림청년동맹, 길회청년동맹, 삼각주청년동맹 등 여러 단체들이 조직되어있었다.

각이한 계렬의 종파분자들이 이 청년단체들을 서로 끌어당기고 각이한 세력의 민족주의자들이 승벽내기로 이 단체들에 손을 뻗쳤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있는 사람들조차 자기의 소속단체가 공산주의단체인지, 민족주의단체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정도였다. 청년학생들은 이렇게 여러갈래로 갈라져있었다. 엠엘파나 화요파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민족주자의 자식들인 경우에도 아버지가 무슨 단체에 속해있는가에 따라 정의부편, 참의부편, 신민부편으로 갈라지고 거기다가 또 보수파와 혁신파로까지 나뉘어져있었다. 견해가 다르고 소속단체가 다르다보니 그들은 늘 반목상태에 있었다.

분렬된 청년운동을 바로잡고 청년들을 민족주의세력과 종파분자들의 영향밑에서 떼어내여 참다운 공산주의혁명의 길로 이끌어나가자면 반드시 새로운 전위조직을 내와야 하였다.

털어놓고 말해서 그때 조선공산당이 제구실을 어지간히라도 하였더라면 우리까지 그런 걱정을 안해도 되였을 것이다. 공산주의리념을 가진 당이 있고 많은 청년조직들이 있으면서도 그 덕을 하나도 보지 못하니 그보다 더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은 없었다.

조선혁명은 그 자체의 특수성으로 하여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많은 애로와 난관이 걸음마다 앞을 가로막아나섰다.

종파분자들과의 관계,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 중국인민들과의 관계, 국제당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항시적으로 제기되었다. 게다가 만주에서 활동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일제와 중국반동군벌들로부터 이중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혁명을 능란하게 령도해나가자면 그것을 감당할만한 세련된 령도핵심과 올바른 지도리론이 있어야 하였다.

≪ㅌ,ㄷ≫의 리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우수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자라났다. 파쟁도 모르고 사대주의도 모르고 집권욕도 모르며 낡은 때가 묻지 않은 새형의 청년공산주의자들로써 우리 나라 청년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롭게 개척해나갈수 있는 참다운 핵심이 육성되였다.

화전과 길림에서 새 사조를 탐구하고 ≪ㅌ,ㄷ≫와 함께 투쟁의 길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조선혁명의 실천과 관련된 일정한 지도리론도 가지게 되였다.

나는 이런 지도리론을 구현한 전위조직으로 공청을 내올것을 결심하고 그 강령과 규약을 만드는데 착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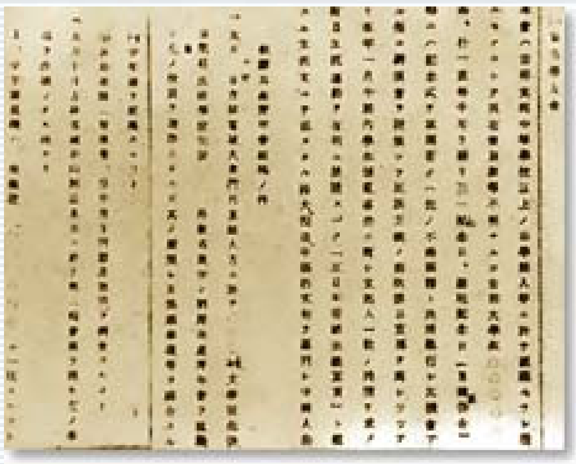
강령에서는 공청이 조선혁명의 실천과 밀접히 결부된 리론에 의하여 지도되며 종파를 철저히 배격한다는 것이 특별히 강조되었다.

우리는 이런 준비에 기초하여 1927년 8월 28일 북산공원의 약왕묘 지하실에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는 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는 최창걸, 김원우, 계영춘, 김혁, 차광수, 허률, 박소심, 박근원, 한영애를 비롯한 반제청년동맹 핵심들과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참가하였다.

내가 보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미 소책자로 세상에 나갔다.

그날 우리는 ≪ㅌ,ㄷ≫를 뭇던 때처럼 서로 어깨를 겯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조직지도하신데 대한 일제의 비밀문건

고 한덩어리가 되어 ≪인터나쇼날≫의 노래를 불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골간으로 하고 여러 혁명조직들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청년들로 무어진 반제민족해방과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비합법적인 청년조직이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조선청년공산주의자들의 선봉대로서 각계각층 대중단체들을 조직지도하는 전위조직이었다.

우리는 공청을 창립한 다음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대오의 조직사상적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헌병, 경찰, 특무들의 준동과 반동분자들, 종파분자들의 해독행위가 심한 당시의 실정에서 조직을 보존할 수 없었다.

공청은 동맹원들의 사상교양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들속에서 정치리론수준과 지도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에 많은 힘을 넣었다. 동맹원들속에서는 그때 ≪제국주의론≫, ≪식민지와 민족문제≫, ≪조선혁명의 당명투쟁과업≫과 같은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공청원들의 조직생활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당시 공청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성격검토회를 가지고 공청원들의 생활을 총화하였다. 공청원들은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되었으며 공청대오는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집단으로 자라났다.

우리는 공청원들에게 아래조직들을 지도할데 대한 분공, 청년학생들과 군중을 계몽시킬데 대한 분공, 농촌을 혁명화할데 대한 분공 등 다양한 분공을 많이 주어 실천활동을 통하여 그들을 부단히 단련시키였다.

또한 혁명조직들에서 단련된 우수한 청년들로 공청대오를 부단히 늘여나갔다. 그리하여 공청은 짧은 기간에 길림시와 그 주변은 물론, 돈화, 흥경, 화전, 무송, 안도, 반석, 장춘, 할빈 등 만주의 넓은 지역과 북부조선일대를 비롯한 국내깊이에 까지 확대되었다. 공청은 조선혁명에서 전위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이 대중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맡아하는 것은 공산주의운동에서 하나의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이 제구실을 똑똑히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청이 당에서 해야 할 일까지 맡아가지고 자기산하의 청소년조직들에 대한 지도와 함께 로동자조직, 농민조직, 녀성조직들에 대한 지도까지 동시에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는 공청을 창립한 다음 소문을 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대중속으로 스며들어갔다. 설사 그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혁명에 리롭고 인민에게 리로운 일을 하면 그만이다, 이것이 우리의 립장이고 배짱이였다. 남들이 령도권이 탐나서 자신들을 ≪정통파≫라고 자랑하며 돌아다닐 때에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그런 허영의 세계와 담을 쌓고 혁명의 길을 한치한치 뚫아나갔다.

공청은 청년들의 조직적 결속을 촉진시키고 핵심을 육성하며 우리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는데서 눈부신 역할을 하였다. 공청의 창립은 새형의 당조직을 내오기 위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힘있게 추동하였으며 그 위업을 앞당기는데서 중추적이고 근본 적인 역할을 하였다. 1930년 여름에 결성된 첫당조직의 성원들 중 대다수는 공청을 통해 육성된 선봉적인 청년투사들이였다.

얼마전에 우리는 공청창립일인 8월 28일을 청년절로 제정하였다.

(끝)

일화

장군님과 제대군인

이 이야기는 1999년 9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홍단군 홍암분장을 현지지도하시던 때의 일이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곳 분장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나신 후 새로 일떠선 제대군인마을의 전경을 돌아보시며 집을 휴양각처럼 잘 지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우리 제대군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집에 좀 들려보고 가자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들리신 집은 홍암분장 3작업반에서 일하고 있는 제대군인 이기선동무의 가정이었다. 때마침 집에는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는 부부간이 다 있었다.

이기선동무는 어제 날의 해병이었으며 그의 아내 역시 바다를 사랑하여 바닷가에서 유년시절과 처녀시절을 보낸 동무였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고 꽃피우는 길에서 인연을 맺고 당이 부르는 새로운 초소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달려온 제대군인 가정의 원앙새같은 부부를 미덥게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이기선동무에게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였는가 고향은 어디며 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신혼살림에 애로되는 것이 없는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으시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오래간만에 찾은 친자식의 살림살이를 돌보시는 듯 방들과 부엌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식장까지 열어 보시며 집안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이어 아늑한 방안에 들어서신 장군님께서는 햇빛 밝은 벽에 걸려있는 제대병사의 해군복과 군모를 바라보시더니 군복앞섶에 번쩍거리는 훈장과 메달을 쓰다듬으시며 훈장이랑 많이 탔구만 라고 칭찬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벽에 걸려 있는 사진들을 눈여겨보시었다.

그 사진은 이기선동무가 병사시절에 뜻깊은 대회들에 참가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이기선동무더러 어디에 섰는가고 친근하게 물으시었다.

이기선동무가 꿈에도 잊지 못할 그날의 감격이 되살아 올라 갈린 목소리로 여기에 섰습니다 라고 자기 모습을 가리켜 드리자 장군님께서는 못내 대견하시어 환하게 웃으시면서 해군에서 오랫동안 복무하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높이 칭찬해 주시었다.

순간 제대병사는 뜨거운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소리없이 울음을 삼키는 제대군인부부내외의 격정을 눅잦혀 주시려는 듯 방안의 알뜰한 침대를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여기 앉아도 좋겠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이기선동무는 황급히 장군님께 자리를 권해 드리며 침대 위에 깐 담요도 옷장의 결혼식 옷과 나들이옷이며 이불장의 폭신한 이부자리도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라고 마치 어머니 앞에 새살림을 자랑하는 자식처럼 스스럼없이 말씀드렸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며 아직도 못다주신 사랑이 있으신 듯 전기화된 훌륭한 집을 쓰고 사는데 그에 맞게 문화생활수단과 세간도구도 더 갖추어 주자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마음 같아서는 제대군인들을 다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치 않는다고 하시며 그들 모두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시었다.

이기선동무는 자기가정과 모든 제대군인들에게 한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부모들도 아직 와 보지 못한 자기 집에 오늘 장군님께서 선참으로 오셨다고 정말 고맙다고 다시금 인사를 올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아, 거야 응당 내가 제일 먼저 찾아와야지, 동무네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해서 말이요 라고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그러시고는 우리가 오늘 가정방문을 왔는데 어떻게 그냥 헤어지겠는가고 하시면서 새 집 앞에서 제대군인부부를 양옆에 나란히 세우고 기념사진을 찍어 주시는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송가

선군정치 받드세

야전차로 전선길 천리
함선으로 바닷길 천리
한반도로 밀려오던
침략의 불구름 막아주셨네
총대를 앞세우는 **김정일**장군
선군정치 제일일세
선군정치 받드세

무적강군 키우신 장군
총성없이 이기시는 장군
이남 민중 한품에 안아
사랑으로 존엄을 지켜주셨네
총대를 앞세우는 **김정일**장군
선군정치 제일일세
선군정치 받드세

흠모

김정일총비서께서 쌓으신 업적은 세계를 경탄시키고 있다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에 참가한 로씨야 까렐리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대표 위또르 예고로브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조선인민과 함께 성대히 경축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격동된 심정에 대해 말하였다.

그는 **김정일**동지는 만민의 가장 높은 존경을 받으시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쌓으신 위대한 업적은 세계를 경탄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이께서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사회주의위업을 현명하게 이끌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이께서 쌓으신 위대한 업적의 하나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신것이다.

그이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조선을 불패의 보루로 다져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뛰여난 령도력, 숭고한 풍모를 지니시고 대외관계발전에서도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최근시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적지위와 존엄이 더욱 높아 진 사실이 이를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의 통일운동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이룩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력사의 온갖 도전들을 짓부셔 버리며 승리적전진을 이룩해 나가고 있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활동을 과감히 전개해 나갈것이다.

미국의 전쟁책동 투쟁으로 분쇄하자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20일~22일

미국에 의한 **속에 반백여년을 살아온 우리 민중의 항거와 분노가 대중적인 반미투쟁으로 힘차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부시가 끝끝내 이땅에 날아들었는데요.

부시의 이번 방한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루려는 이 땅의 각계 민중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써 기어코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용납못할 전쟁행각입니다.

이 땅을 동족대결의 장, 민족공멸의 장으로 만들려는 부시의 북침전쟁행으로 한반도에는 또다시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결은 전쟁이며 전쟁은 민족공멸입니다. 오늘 우리 민중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높이 받들어 화해와 민족대단결로 서로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바라고 있으며 또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으로 어부지리를 얻으려 꾀하는 미국의 시선은 그것이 달가울리가 없습니다.

부시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북을 악의 축이니 뭐니하는 망발을 연이어 쏟아내며 전쟁분위기를 고취해온 **입니다. 단합된 힘으로 자주,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찬물을 끼얹고 고의적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부시의 방한으로 이 땅에는 핵참화의 검은 구름이 시시각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진 부시가 우리 민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농락하려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지금 경향각지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우리 민중의 미국의 침략전쟁반대투쟁들은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굳센 의지와 지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와 역사는 반미자주화, 민족대단결로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을 투쟁으로 분쇄하는 성전에 우리 민족성원이라면 누구나 서슴없이 분기해 나설 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백만 청년학생들이여, 시대와 역사앞에 항상 당당히 나섰던 우리 백만 청년학우들이 이 땅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결코 수수방관할수 있겠는가.

식민지의 아들딸로 태어나 싸우면서 찢겨지는 *** *** ****** 반미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언제나 조국과 민중의 부름에 주저없이 달려나갔던 우리 청년 학생들입니다.

정의에 투철하고 애국에 열렬한 백만학도들은 피끓는 심정을 미국의 북침전쟁책동분쇄를 위한 투쟁에 뜨거운 용광로로 폭발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다시피 미국의 침략적이고 약탈적인 야망을 누구보다 먼저 직시했고 엎어지고 쓰러지면서도 온 몸으로 부딪혀 반미투쟁의 역사를 만들어온 백만 청년학생들이 오늘의 반미투쟁에서 설 자리는 맨 선두입니다.

우리 민족을 핵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에 대한 치솟는 민족적 분노를 안고 실천하는 민중의 선봉대, 한총련의 투쟁앞에 미국의 무모한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산산히 부수어져 버릴 것입니다.

부시의 북침전쟁책동을 투쟁으로 분쇄하는 반미투쟁대오의 앞장에 자랑스러운 한총련의 깃발을 휘날려 나갑시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22일

경축의 밤 마련
2.16경축준비위원회

부산 시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2.16경축준비위원회≫가 경축의 밤을 마련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뜻깊게 경축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밤 부산 시내 모장소에서 비공개리에 진행된 경축의 밤행사는 2.16명절을 경축하는 여러 인사들의 발언이 있은후 ≪통일의 태양을 따릅니다≫, ≪**김정일**세상이 온다≫, ≪잠못 드는 서울이여≫ 등 **김정일**장군님을 흠모하는 내용의 시들과 통일의지를 담은 10여편의 시가 낭송됐습니다.

이어 경축의 밤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2월은 봄입니다≫, ≪정일봉의 우뢰소리≫를 비롯한 이북노래들과 북극성 메아리악단에서 형상한 노래 10여편이 연주돼 참석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흠모노래 창작보급

요즘 항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절인 뜻깊은 2월의 대명절을 계기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열풍이 급격히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노래들이 널리 창작보급되고 있습니다.

부시방한반대범국민대회

지난 20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노동자, 농민, 학생, 종교인들과 시민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부시방한반대범국민대회에서는 참가자일동의 명의로 된 결의문이 발표됐습니다.

결의문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이며 부시는 전쟁의 불길을 한반도에 옮기려는 장본인, 세계민중들을 굶주림과 절망에 빠뜨리는 주범이라고 낙인찍고 미국을 반대해 싸우려는 각계각층의 굳은 의지를 담은 결의를 밝혔습니다.

결의문은 우선 미국의 한반도 전쟁정책을 막아내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의문은 북을 향한 미국의 전쟁위협이 북녘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도발행위라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전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족의 화해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 마음을 나누고 힘을 합치는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 부시의 내정간섭과 민족분열책동에 맞서 싸울 것이며 6.15공동선언실현의 길로 더욱 힘차게 내달릴 것이라고 결의문은 지적했습니다.

결의문은 다음으로 굴욕적인 한미투자협정을 저지하고 미국의 경제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며 남북의 대결을 부추기고 세계평화를 파괴하려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가입강요, 전쟁무기강매책동을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문은 또한 주한미군기지는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의 불씨라고 규정하고 주장하고 전지역의 미군기지를 모두 되찾는 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문은 미군이 남쪽에서 감행한 민중학살범죄실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슬픔은 여전히 씻겨지지 않았다면서 미군은 그 기만에 찬 역사위에 군림하여 살인, 강간, 강도, 절도 등 각종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불평등한 행정협정때문이라면서 결의문은 모든 범죄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고 행정협정을 개정하는 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시이한에 즈음한 합동기자회견
사회단체 대표자들

부시방한반대투쟁참여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부시가 방한을 마친 것과 관련해 민중연대의 주최하에 21일 합동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회견문은 한국에 날아든 부시가 그동안 분노한 국민들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 삼중사중의 경찰병력에 둘러싸인채 고독한 일정을 보냈다면서 이것은 부시의 행각을 반대하는 범국민적 여론의 필연적 결과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부시가 6.25전쟁때에 미군만행 등과 관련해 그 어떤 사과도 한 것이 없고 납득할만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데 언급하고 회견문은 이러한 태도는 오만과 독선, 탐욕스러운 자세로부터 나온 것으로써 이를 온 국민의 분노를 담아 강력히 규탄한다고 언명했습니다.

회견문은 반미투쟁참가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경찰의 폭력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한 부상을 당한데 대해 온 국민과 함께 경악을 금할수 없다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경찰에 연행됐거나 구금된 사람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회견문은 부시방한결과를 종합해볼때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된다, 또한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의 힘을 모아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한다는 각성을 다시금 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 고조된 부시방한반대투쟁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21일~22일

전쟁미치광이인 부시를 반대하는 각계층 민중의 투쟁이 그의 한국행각을 계기로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에 관해서 윤정원씨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중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대통령 부시가 끝내 방한했었는데요. 부시의 방한을 전후로 이 땅에서 부시방한반대투쟁은 더더욱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 얘기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윤정원 : 부시가 방한하는 첫날인 지난 19일 서울 도심에서는 부시방한을 반대하는 집회가 전날에 이어서 계속됐습니다.

소파개정국민행동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성남공항 정문앞에서 부시방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철회 및 한반도전쟁위협중단 그리고 에프15기 등 전쟁무기강매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사회당은 이날 서울 중구4동 조흥은행앞에서 에프15전투기강매와 부시방한반대결의대회를 가졌고 양민학살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회 회원 100여명도 이날 오후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학살진상규명대회를 갖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노근리를 비롯한 한국전 당시 양민학살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회자 : 부시방한반대투쟁은 대학생들과 종교인들속에서도 드세차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대 정문위에는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대형 플랭카드가 내걸렸는데요. 서울대총학생회가 제작해 부착한 이 플랭카드는 한 변의 길이가 4.5미터인 정삼각형으로 ≪ㅅ≫자를 형상화한 15미터높이의 정문꼭대기에 내걸렸어요. 플랭카드에는 찢어진 성조기그림과 함께 ≪전쟁반대≫, ≪부시방한저지≫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서울 기독교청년회는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입장을 발표하고 부시에게 북미간합의준수와 북미관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청년회는 부시대통령은 대테러전쟁의 세계전략을 북미관계에도 적용시키려는 북압박구상이 남북관계진전과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어렵게 한다는 걸 직시해야한다면서 94년 북미기본합의서와 2000년 북미공동커뮤니케의 준수를 약속하고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종교계도 같은날 각각 대한성공회앞과 조계사내에서 부시대북강경정책규탄기독인대회와 한반도평화실현과 전쟁반대를 위한 불교인대회를 가졌습니다.

사회자 : 부시방한반대투쟁은 19일에 이어 20일에도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그랬습니다. 부시방한 이틀째인 20일에도 서울 곳곳에서 부시방한반대집회가 연이어 진행이 됐어요. 전국연합과 한총련 등 600여개단체 20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어요. 이에 앞서 오후 1시에는 서울대학교 마로니에공원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2000여명이 모여 부시방한반대를 주장하는 민중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런가하면 재야단체회원 30여명은 서울 무교동 미국 보잉사 광고간판에 전쟁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부시방한반대투쟁을 벌였어요.

또 이날 한미행정협정개정국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회원 100여명은 청와대입구에서 부시의 행각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는데요. 그들은 미국이 저들의 무기강매를 위해 대북강경정책을 일삼고 있다면서 부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회자 : 이같은 부시방한반대투쟁은 동족간의 전쟁과 주한미군영구주둔을 반대하고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영구분열, 반통일책동을 반대하는 우리 민중의 강력한 항거의 표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은 앞으로 더욱 고조, 확산될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면수심의 인간

오늘의 연단 - 2월 19일~22일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런 대상을 찾는다는 것도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될수록 남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 민족으로써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총재라고 하는 이회창이 미국에 가서 별의별 망발을 다한데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면수심이라는 말밖에 더 ***수 없다.

그것은 우선 그의 미국행각 자체가 추악한 민족반역행위이기 때문이다.

이회창의 미국행각목적은 미국상전을 등에 업고 올해에 어떻게해서든지 대선꿈을 이루어보려는데 있다. 물론 지금 이 땅은 미국의 식민지속국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를 미국이 거머쥐고 좌지우지하며 우리 국민에게 이루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당하는 온갖 불행과 고통의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여기에 그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다. 우리 국민 모두가 민족적 수치와 분노를 가슴에 안고 미국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지금 경향각지에서 미군기지반환투쟁을 비롯한 반미투쟁이 날로 힘차게 전개되고 있는 것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때에 이회창이 국민의 반미함성을 외면한채 미국의 힘을 빌어보려고 굽신거리며 상전들을 찾아갔으니 이 얼마나 비열하고 추악한 민족반역행위인가.

미국행각시 그가 한 언동 역시 매국역적행위의 극치이다.

그는 미국 부통령을 비롯한 상전들을 연이어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북은 변한 것이 없다느니 휴전선일대에서 북의 무력을 후퇴시켜야한다느니 핵개발저지니 뭐니하며 북을 걸고 별의별 험담을 다했는가 하면 주한미군영구주둔론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오직 미국의 환심을 사서 일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대권욕을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친미사대매국역적의 용납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그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북대결광기를 부린 것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북침전쟁도발기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미국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회창이 미국행각시에 떠든 망언들은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그대로 되받아 외운 것이다.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자기의 신조로 삼겠다는 것이 이회창의 본심이다. 그러니 그의 몸에는 민족의 피가 아닌 미국의 피가 흐른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가 주한미군영구주둔론을 고창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민족, 민중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고 통일의 암적 존재인 미군침략자들이 60년 가까이 이 땅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것만해도 통탄을 금할수 없는 일인데 통일이후에도 미군이 계속 남아있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으니 이것이 어찌 건전한 사고를 가진 인간이 할수 있는 말이라 하겠는가.

미군을 영원히 신주모시듯 하면서 그의 옷섶에 매달려 정치적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이회창과 같은 미국의 머슴꾼만이 할수 있는 매국배족적인 망언이다.

그는 민족적 자존심이나 존엄같은 것은 꼬물만큼도 없는 인간추물이다. 이회창은 이 땅을 미군침략자들의 군화발에 영원히 짓밟히게 하고 거기서 일신의 부귀영화와 권좌를 차지하려 하는 것이다. 이회창이야말로 더러운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미국에 송두리째 섬겨바치고 그에 개질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천하에 둘도 없는 특등매국역적이다.

이런 자가 권좌를 차지하게 되면 미국침략세력의 분열영구화책동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남북관계는 이전의 첨예한 대결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며 민족공멸의 전쟁밖에 빚어질 것이 없다.

독사를 그냥 두면 계속 독을 쓰기 마련이다.

결론은 명백하다. 인간의 탈을 쓰고 미국에 개질을 하는 이회창을 하루빨리 민족의 명부에서 제거해야 할 것이다.

구국의 소리

자주는 민족의 출로

백철수 - 구국전선 주체91, 2월 21일

어느 나라나 민족이든 자주성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특히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하여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자주야말로 현시기 우리 민족운명개척의 유일한 출로이다.

자주의 길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길이다. 자주가 없는 조국통일이란 있을 수 없다.

세기와 세기를 이으며 지속되고 있는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은 해내외의 온 겨레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끝장내자면 겨레모두가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외세투쟁을 과감히 벌여야 한다.

외세는 우리 강토를 인위적으로 분열시키고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는 장본인이다. 그러므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언제가도 조국통일을 성취할 수 없다.

자주적 입장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반외세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수 있게 해준다.

원래 민족의 자주정신은 다른 민족에게 얽매이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기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걸맞게 자체의 힘으로 살아나가려는 자주독립의식이다.

때문에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자주의식으로 정신무장한다면 반외세투쟁을 거족적으로 벌여나갈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걸맞게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에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청산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이 확립된다.

자주의 길은 현시기 또다시 대결국면에로 되돌아설 위험에 처한 남북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길이다. 남북관계를 확고히 개선하는 것은 현시기 우리 민족 앞에 나선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제이다.

남과 북사이의 관계를 개선해야 온 민족의 화합과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주체의 위력은 다름아닌 단결의 위력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남북관계는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도 불신과 대결의 관계에서 벗어 못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민족자주선언인 6.15공동선언이행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반통일세력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반북대결책동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외세에 추종하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은 남북사이에 신뢰와 화해가 아니라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남북관계를 진심으로 개선하려면 당국자들 자체가 외세에 의존하고 외세와 공조할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입장으로 돌아서서 동족과 힘을 합치는 길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남북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될 수 있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데 기여할 수 있다.

자주의 길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와 예속을 끝장낼 수 있게 하는 길이다. 오늘 이 땅 민중은 미국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온갖 민족적 멸시와 천대, 식민지적 착취와 약탈을 당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자주독립을 이룩하고 새 생활창조의 길로 나가고 있는 오늘 유독 이 땅에서만 외세의 식민지적 지배와 예속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민족의 최대수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중이 이러한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자면 이 사회자체가 자주화되어야 한다. 자주의 기치밑에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치가 시행될 때 우리 민중은 진정으로 참된 삶과 복을 누릴 수 있다.

참으로 자주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외세의 식민지적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출로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과감히 투쟁함으로써 삼천리강토위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 것이다.

자주권은 평화의 담보

노선일 - 구국전선 주체91, 2월 21일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동시에 평화의 담보로 된다.

남에게 자주권을 빼앗기면 그것은 곧 예속이며 예속은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길이다.

당당한 자주권을 행사할 때 자기를 지켜낼 수 있으며 자기를 지켜낼 수 있어야 평화도 담보될 수 있다.

이것은 상반되는 남과 북의 현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이 땅에는 자주권이 없다. 모든 것은 식민지종주국인 미국이 거머쥐고 있다.

이 땅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국은 평화의 ≪사도≫로, 한국의 ≪벗≫으로 자처하고 있지만 자기의 이해관계로 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지 않는다.

50여년간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정치, 경제, 군사적 불안정은 전적으로 미국의 전략에 따른 인위적 현상이다.

이승만정권의 조작으로부터 박정희군사정권이나 전두환군사정권의 출현도 민중봉기에 의한 식민지지배의 붕괴를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고 경제의 파괴로 수백만 근로대중에게 불행과 재난을 덧씌운 IMF한파도 미국이 몰아온 것이였다.

6.15공동선언으로 모처럼 마련된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이처럼 자주권이 없는 이 땅은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노예로, 도구로 전락되고 자기 자신도 지켜낼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북을 보라! 이북은 자주권을 자기의 생명으로 간주한다.

이북은 자기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거나 침해하려는 그 누구와도 타협과 양보, 용서를 모른다.

지속되는 미국의 봉쇄와 정치군사적 압력, 경제적 난관 속에서도 이북이 자기를 지켜내고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비결도 바로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당당히 행사하는데 있다.

또 미국의 변함없는 북침전략에 의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가 해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이북의 강력한 자주권에 있다.

만일 이북의 자주권이 확고치 못했다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었을 것이고 한반도도 폐허로 되었을 것이다. 바로 한반도의 평화는 이북에 의해 담보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는 조국통일에 있다. 조국통일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도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주권이 없이는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국토분열만이 지속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몰아내고 빼앗긴 자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그렇게 될 때라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22일

선군시대 인간사랑의 미풍을 더 활짝 꽃 피우자

로동신문 사설 - 주체91, 2월 21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선군시대는 력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끊임없이 꽃 펴나는 긍지 높은 시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인간애를 심장으로 지니고 사경에 처했던 4명의 환자들을 기적적으로 소생시킨 세포군인민병원 의료일군들과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아름다운 소행과 숭고한 정신세계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격동시키고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신 하나의 혁명적대가정에서 꽃 펴나는 이런 인간사랑의 대풍모를 더욱 활짝 꽃 피워 나감으로써 우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힘 있게 과시하고 위대한 선군시대를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동지를 끝 없이 사랑하고 동지를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서 훌륭한 교양을 받은 우리 인민만이 발휘할수 있는 혁명적풍모이며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이다.

인민군대의 사상과 정신, 고상한 도덕이 온 사회를 지배하는 오늘의 선군시대에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는 새로운 높이에 올라 서고 있다. 300여명이 자기의 피와 살을 아낌없이 바쳐 심한 화상으로 사경에 처한 4명을 소생시킨 세포군의 인간사랑의 새 전설은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내대는 우리 인민군대의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와 고상한 희생정신을 높은 경지에서 구현한것이다. 이번에 세포군에서 높이 발양된 아름다운 긍정적소행의 주인공들가운데는 군인민병원의 보건일군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물론 나어린 청소년학생들과 출장길에 사연을 전해 듣고 피부이식수술에 참가한 중앙과 다른 지방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있다. 이것은 선군시대에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하여 뜨거운 진심을 바치고 자기를 희생하는것이 전 사회적인 정신도덕적풍모로 확고히 전환되였음을 보여 주는 자랑스러운 화폭이다.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아름다운 긍정적소행의 주인공들이 되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인간사랑의 서사시가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는것이 선군시대의 참모습이다.

평범한 나날도 아니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소행은 우리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에 대한 힘 있는 과시로 된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사랑과 믿음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굳게 뭉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생활력 있는 사회이다. 세포군에서 발현된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는 극단한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현실은 우리의 사상과 도덕, 사회주의생활이 비할바없이 우월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정신도덕적으로 압도하고 있으며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해 주고 있다.

세포군인민들속에서 발휘된 뜨거운 인간애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어버이로 모시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나라에서만 펼쳐 질수 있는 자랑스러운 화폭이다. 우리 나라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한가정, 한식솔이 된 사회이다. 혁명적동지애, 인간사랑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있고 전체 인민이 장군님을 닮아 가는 우리 사회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닌 새형의 인간들이 자라나는 인간사랑의 대화원이다. 불보다 뜨거운 인간애, 동지애를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있기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위험한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 동지들을 구원하고 영예군인들의 길동무,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의 아들딸이 되며 사경에 처한 환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피와 살을 서슴없이 바치는것과 같은 아름다운 소행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다. 세포군의 인간사랑의 새 전설은 우리 사회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혈연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하나의 대가정, 장군님의 한식솔이라는것을 다시금 힘 있게 과시한 긍지 높은 사변으로 된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꽃 펴나는 이러한 혁명적풍모를 더욱 높이 발양시켜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활짝 꽃 피우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선군시대를 끝 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선군시대 인간사랑의 대풍모를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는 우리 인민모두에게 끝 없는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 주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닌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는 사랑의 정치, 믿음의 정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를 지닌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울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시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도덕교양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오시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의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끊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며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속에서 발현되는 수많은 긍정적소행들을 적극 찾아 내세워 주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신임을 베풀어 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는 우리 사회에 참다운 인간관계의 새 력사가 펼쳐 지고 력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가 확고히 지배하게 한 원천으로 되였다.

오늘 그 어디에서나 감동 없이는 들을수 없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수없이 꽃 펴나고 우리 사회가 화목하고 일심단결된 사회로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의 결실이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 세대들이 선군시대 인간사랑의 풍모를 더욱 높이 발휘해 나갈 때 위대한 장군님의 정치의 위대성과 현명성이 남김없이 과시되게 될것이며 우리의 리상이며 목표인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미래가 앞당겨 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를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하나의 혁명적대가정속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인간사랑의 혁명적풍모를 더욱 활짝 꽃 피워 우리 사회를 일심단결의 사회로 끝 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간애, 뜨거운 동지애를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가장 숭고한 인간애와 동지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천품으로 지니신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시다.

사람들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를 언제나 첫 자리에 놓으시고 동지를 위하여서는 천리길도 걸으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끝 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쳐 가시는 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세포군인민병원 의료일군들과 인민들이 생사기로에 놓여 있던 4명의 화상환자들을 기적적으로 소생시킨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간애, 동지애를 심장에 간직하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인데 있다.

우리는 혁명적동지애와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인민을 하늘로 여기시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의 의지를 신념으로 간직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동지적관계를 맺고 동지적사랑을 꽃 피워 나가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적생활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다. 우리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생활관을 체질화한 사람만이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적집단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고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누구나 다 집단의 생명이 있고서야 개인의 생명이 있으며 운명을 같이 하는 사회정치적집단안에서의 인간관계는 반드시 동지적사랑의 관계로 되여야 한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동지들과의 관계에서나 사회공동생활에서 언제나 집단주의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누구나 숭고한 인간애와 혁명적의리를 지닌 참다운 혁명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동지를 사랑하고 동지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데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참다운 인간이 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세상에서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는것을 투철한 신념으로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고상한 인간관계와 사회주의도덕이 지배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참다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이다. 우리는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혁명적의리와 동지애가 꽃 펴나는 화목한 우리 사회를 영원한 삶과 행복의 터전으로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 나가야 한다. 사람들을 극도로 부패타락시키고 정신적불구자로 만들며 사회에 온갖 패륜패덕이 지배하는 반동적이며 썩어 빠진 자본주의현실에 비한 우리의 제도, 우리의 도덕의 우월성을 심장으로 느끼고 그를 빛내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도덕과 생활양식과 어긋나는 자그마한 불건전한 요소도 우리 사회에 절대로 침습할수 없게 하여야 하며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하여 헌신하는데서 끝 없는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을줄 알아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군인들의 혁명적동지애와 영웅적희생정신을 따라 배우는것이 중요하다. 선군시대는 인민군대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가 사회에 흘러 들어 새로운 사상과 도덕이 창조되는 시대이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에서는 리철민영웅과 같이 터지는 수류탄을 한몸으로 막아 혁명동지들을 구원하고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지켜 물과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여 드는 영웅적위훈이 날로 더욱 높이 발휘되고 있다. 우리는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전우애를 지닌 인민군군인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의 높이에 자신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끊임없이 수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세대답게 아름다운 미풍을 발휘하는데 앞장에 섬으로써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대가정으로 빛내여 나가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를 인간사랑의 미풍이 꽃 피는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빛내여 나가는데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들에서는 우리 당의 긍정감화교양방침을 일관하게 틀어 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 세대들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한 세포군 보건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의 소행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특히 우리 사회의 고상한 풍모를 꽃 피우는데서 군민일치의 전통적인 미풍이 더욱 높이 발휘되도록 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우리 사회에 군대와 인민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자랑스러운 화폭이 끝 없이 펼쳐 지도록 하여야 한다. (끝)

강성대국건설에서 청년들이 돌격대가 되자

로동신문 사설 - 주체91, 2월 22일

최고사령관의 별동대,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조선청년들에게 안겨 주신 값 높은 영예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혼연일체를 이룬 천만의 대오속에서 남 다른 영예를 지니고 사는 우리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끝이 없다. 드높은 정치적열의와 앙양된 분위기속에서 뜻 깊은 2월의 명절을 경축한 온 나라 전체 청년들의 심장마다에는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을 위한 총 돌격전의 앞장에서 영웅적위훈과 기적을 창조하여 청년대오의 값 높은 칭호를 끝 없이 빛내여 갈 충성의 맹세가 끓어 번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청춘의 힘과 지혜와 열정을 바치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청년들이 오늘의 대진군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가장 활력 있는 전투부대, 별동대가 된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고 장군님의 구상과 결심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맨 앞장에서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가장 믿음직한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부대가 된다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제일생명선으로 삼고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무조건 실현하고야 마는것은 우리 청년대오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체질화된 투쟁기풍이다. 우리 청년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 단련된 새 세대답게 위대한 **김정일**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최고사령관동지의 힘 있고 믿음직한 전투부대, 별동대의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한다.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 섰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오래전부터 무르익혀 오신 웅대한 구상을 이 땅우에 활짝 꽃 피우는 성스러운 투쟁이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수십성상 이룩하신 업적과 경험에 토대하여 장군님식으로 부강조국건설의 번영기를 열어 나가는 더없이 보람찬 투쟁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과 믿음속에서 혁명하는 본때를 배우고 장군님의 담력과 배짱, 일본새를 체질화한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격동적이고 력사적인 투쟁의 앞장에서 고귀한 땀을 바치고 청춘을 빛내이는것보다 더 큰 긍지와 자랑은 없다. 새 세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이 벌어 지는 전투장들은 우리 청년들의 활무대이다.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강성대국건설로 들끓는 전투장마다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힘 있는 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 갈 때 온 나라가 혁명적앙양으로 들끓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될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21세기 조국건설의 담당자들이며 주인공들이다. 오늘의 시대는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청년들이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의 앞장에 설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어려운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야 할 돌격대도 우리 청년들이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가 되여야 할 사람들도 다름 아닌 우리 청년들이며 첨단과학기술의 봉우리를 남 먼저 점령해야 할 21세기 주체과학의 주인공들도 우리 청년들이다.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1950년대에 재더미우에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 1970년대 혁명의 북소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높이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친 혁명의 전 세대들처럼 래일을 위한 오늘에 헌신하며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 갈 때 가까운 앞날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는 **김정일**강성대국은 빛나는 현실로 펼쳐 지게 될것이다.

지금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벌어 지고 있다.

날로 악랄해 지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기 위한 오늘의 대진군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오, 최고사령관동지의 별동대로서의 영예를 빛내이려는것은 우리 청년들의 한결 같은 맹세이고 각오이다. 위대한 백두의 령장을 모시고 있고 최고사령관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수백만 청년총폭탄대오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오늘 세계에서 온갖 전횡을 일 삼는 제국주의자들도 가장 두려워 하는 무적의 강국으로 되고 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 우리 청년들은 금방석에 앉혀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도 온갖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어렵고 중요한 대상건설도 통채로 맡겨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의 사상과 정치는 새 세기에도 변함없이 이어 지고 있으며 우리 청년들에게 무적의 슬기와 용맹을 안겨 주고 비약의 나래를 달아 주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세계가 우러르는 위대한 령도자를 앞장에서 받드는 크나 큰 영예와 긍지를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김정일**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오늘의 대진군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뜻도 하나, 운명도 하나가 된 조선청년들의 기상과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맨 앞장에서 받드는 2000년대의 ≪ㅌ.ㄷ≫열혈투사가 되여야 한다.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여도 꿋꿋이 이어 져야 하는것이 수령결사옹위전통이다.

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한별동지를 높이 받든 청년공산주의자들처럼 수령절대숭배정신을 체질화하고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육탄영웅이 되여야 한다. 제2, 제3의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해도 위대한 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선천리를 헤쳐 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신념에는 변함이 있을수 없다. 백두장군별, 백두광명성을 높이 받들어 온 우리 혁명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 나가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나가는 전위투사가 되여야 한다.

총대는 곧 국력이며 민족적자주권이다. 당의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고 총대를 억세게 틀어 쥔 청년총폭탄대오가 있는 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불패이다.

청년들은 조국보위의 직접적담당자이며 기본력량이다. 우리 청년들의 가슴속에는 총대를 사랑하고 군사에 헌신하는 정신이 꽉 차넘쳐야 한다. 인민군대에 복무하는것을 가장 영예롭고 성스러운 임무로 여겨야 한다.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살며 투쟁해 나가야 한다.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맞는 뜻 깊은 올해를 승리자의 열병의 해로 되게 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선군시대에 사는 청년들답게 인민군대가 높이 발휘하는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고 경제강국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청년들은 인민경제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위훈을 떨쳐야 한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추켜 세우는데서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는데서나 청년들이 돌격대가 되여 돌파구를 열어 나가야 한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청년들이 선봉에 서야 한다. 앞을 내다보는 안목과 높은 목표를 점령하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안고 첨단과학기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며 인민경제의 기술개건과 현대화를 하루빨리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고난의 행군≫시기 강성대국건설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던 그 정신과 기백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계급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책동의 초점은 자라나는 새 세대 청년들에게 돌려 지고 있다.

청년들은 언제나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착취계급과 착취제도,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려는 확고한 사상적각오를 가져야 한다. 적들의 파괴암해책동과 내부와해책동에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무자비하게 짓부셔 버려야 한다. 비사회주의적현상의 자그마한 요소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선군시대의 새 세대다운 고상한 풍모를 지니고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해 나가야 한다. 참다운 혁명관, 인생관을 지니고 언제나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며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하고 혁명적으로, 랑만적으로 살며 일하는것은 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러운 품성이며 생활기풍이다. 청년들속에서 혁명동지들과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기풍이 더욱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동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는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모든 사업을 청년들의 포부와 지향, 사상감정에 맞게 참신하고 패기 있게, 전투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사업이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잘 진행되도록 당적지도를 실속 있게 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의 자립성을 높여 주어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창발적으로 하도록 하며 초급일군들이 활기 있게 일해 나가도록 적극 밀어 주어야 한다.

모든 청년들은 21세기 강성대국건설에 청춘의 힘과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가장 활력 있는 전투부대, 별동대의 영예를 다시금 높이 떨치자.

미제의 호전분자들의 새전쟁도발책동과 그 위험성

≪특강≫ 미제호전세력들의 대조선강경압살책동과 그 파산의 불가피성 제3회

림경수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2월 22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전시간에 615북남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거는 미제의 호전분자들의 책동과 그 정체에 대해 보았습니다.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온 겨레에게 기쁨을 안겨주며 좋게 발전하던 조선반도의 정세가 매우 심상치 않게 번져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제의 호전분자들의 무모한 새전쟁도발책동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미제의 호전세력들의 새전쟁도발책동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미국의 새전쟁 도발책동은 조선반도에서 더욱 더 엄중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책동을 더욱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미제의 호전세력들은 오늘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권 첫 날부터 노골적인 힘의 정책에 매달려 호전적인 매파정부로 알려진 부시행정부의 출현과 함께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저들의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새 전쟁 도발책동을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 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에서는 독단과 강권으로 악명 높은 부시를 우두머리로 하는 새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부시정권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조선반도를 주공전선으로 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지배권을 확립하며 세계에 대한 패권적 지배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제의 호전세력들은 우선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도발의 구실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북조선 위협선전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부시를 우두머리로 하는 미제의 호전세력들은 그 무슨 우리의 위협이니,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검증이니 뭐니 하며 망발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론을 내세워 ≪아프가니스탄 다음의 테러응징전쟁목표가 북조선이 될 수 있다.≫, ≪광범위한 사찰을 거부할 경우 외교보다는 전쟁이 우선시 될 수 있다.≫ 등의 호전적인 여론을 내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탈레반 다음은 누구? 북조선을 잊지말라.≫라는 글에서 우리가 미국의 다음 번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 상기 시켰습니다.

미제의 호전계층은 지난 9월 11일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전쟁 다음의 공격목표가 북조선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을 내돌리는 것과 함께 이른바 북조선의 핵 및 미사일위협설을 내돌리며 북조선 위협선전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제의 호전세력들이 떠드는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로부터 미국에 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지역을 핵무기와 미사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핵 및 미사일로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인류 멸살도 서슴치 않으려는 미국이야말로 진짜 핵 및 미사일위협의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미국이 있지도 않는 우리의 미사일 위협을 걸고 북조선 위협선전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새 전쟁도발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제의 호전세력들은 새 전쟁도발의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는 것과 함께 남조선과 그 주변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1주적으로 선포한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조미사이의 군사적 대결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있습니다. 미제의 호전세력들은 지난해에 남조선 군부에 보다 새형의 전투기를 구매할 데 대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새로운 조선전쟁수행에 맞게 남조선 강점 미군과 남조선 군의 군사장비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더 많은 침략무력을 남조선에 집결시키려는 미제의 검은 속셈의 발로였습니다. 미제는 또한 구축함에 설치하는 MK-41미사일 수직발사체계를 남조선에 넘겨주기로 하였고 더욱이 엄중하게는 우리의 미사일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 밑에 조선 동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이 이지스함을 조선 동해에 배치하기로 한 것은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는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공중과 해상에서 전면적인 타격을 가하자는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기도는 9월 11일 사건을 계기로 더욱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미제의 호전세력들은 조선반도에서 전력공백을 메군다는 구실밑에 남조선에 새로운 전투비행대를 비롯한 최신식 군사장비들을 끌어드렸습니다. 이것은 미제가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가 아니라 군사적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고 있으며 무력으로 우리를 압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미제의 호전세력들은 남조선과 함께 주일미군무력을 강화하는데도 힘을 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시정권이 집권한 후 일본으로 수많은 미국함선들이 꼬리를 물고 밀려든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미제 7함대의 기함 블루리찌호, 미사일 프리게트함 게리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토페카호 핵잠수함들인 시카고호 로스앤젤스호를 비롯한 미해군의 전투함선 집단들이 뻔질나게 일본에 기어들었습니다. 이밖에도 미제는 조선반도와 인접한 사세로 기지에 서해 분견대 사령부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조선반도 주변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시켰습니다.

미제의 호전세력들이 기어이 조선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를 받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악의 근원인
미국을 이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의 호전세력들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격화시키고 새로운 조선전쟁도발을 위해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제의 무력증강책동으로 지금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대치상태는 더욱 격화되고 새 전쟁의 위험은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미제의 호전세력들은 또한 남조선에서 매일과 같이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고 새 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발광하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의 출연과 때를 같이하여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야망 밑에 수많은 침략군 부대들과 살인장비들을 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했습니다. 미제가 지난해에 감행한 연합특공훈련, 연합기뢰전훈련,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각종 전쟁연습들은 다 예외없이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선재타격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둔 것이였습니다.

미제가 제2조선전쟁도발을 얼마나 꿈꾸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전쟁연습에 동원된 장비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미제는 지난해에 부산 앞바다에서 연합기뢰전 훈련을 벌려놓았는데 여기에는 1만 8천톤급의 전함 인천호가 참가하였습니다. 이 전함에 ≪인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미제가 지난 조선전쟁시기 인천상륙작전의 그 무슨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실들은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기 위해 새 전쟁도발책동에 얼마나 발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승리를 떠들며 기고만장해진 미제는 새 전쟁도발을 노리고 더욱 분별없이 날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미국대통령 부시는 국회에서 한 연두교서라는 데서 우리 나라를 테러와 억지로 연관시켜 힘으로 압살하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습니다. 부시는 우리 나라가 대량 살육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다고 함부로 걸고들면서 ≪미국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등 갖은 악담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부시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 중의 하나라고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만하게 지꺼린 것입니다.

근래의 조미관계역사에 미국대통령이 직접 정책연설을 통해 자주적인 주권국가인 우리나라에 이처럼 노골적인 침략위협을 가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시를 비롯한 미제의 호전세력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제의 호전세력들이 우리의 그 무슨 위협을 계속 걸고 늘어지면서 군사적 힘으로 전조선을 거머쥐기 위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그것은 제놈들에게 더 큰 재난을 가져오는 우둔한 모험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백전백승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십니다. 강철의 의지와 뛰어난 지략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결심과 명령은 곧 성공과 승리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결심하시어 못하신 일이란 없으며 그것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승리합니다. 영장중의 영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군대와 인민은 적들의 그 어떤 새 전쟁 도발책동에도 단호히 대처할 신심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일심단결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전군에 차넘치는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은 우리 군대의 특질로 되고 있습니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 된 것이 오늘의 조선의 모습입니다. 만일 미제의 호전세력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새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 십 년 동안 다지고 다져 온 사상의 힘, 단결의 힘으로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박살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음으로 그 어떤 대적의 무력침공도 일격에 타격할 수 있는 강위력한 수단과 능력이 있습니다. 침략자들이 하늘로 날아들건, 땅으로 기어들건, 바다로 덤벼들건 멸적의 총검이 기다리는 우리 나라에서는 그들에게 주검과 패배밖에 차려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것을 피할 자리는 지구상의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일 미제의 호전세력들이 기어이 조선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를 받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악의 근원인 미국을 이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 번에 걸쳐 진행되는 ≪미제호전세력들의 대조선 강경 압살책동과 그 파산의 불가피성≫에 대한 특강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용산미군기지 반환촉구 4차 시민대회

집회허가와 보장에 있어 경찰의 초법적인 법집행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가 뜨겁다.

23일 오후 3시 용산미군기지 1번 게이트에서 열린 ≪미군 아파트 건립 반대, 부시 방한 결과 규탄, 용산미군기지반환촉구 제4차 시민대회≫를 마치고 17번 게이트까지 행진을 진행하려던 참가자들은 경찰의 저지에 막혀 예정된 행진을 하지 못했다.

김종일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오늘 오전에 용산경찰서로부터 행진코스 중에 차량체증을 심하게 불러일으키는 곳이 있으므로 행진은 불허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종일 사무처장은 ≪하지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질서유지인을 둘 경우 행진이 가능하다≫며 불법적으로 시위를 방해하고 있는 경찰책임자에게 민 · 형사상의 소송등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항의할 것이라 주장했다.

실제로 경찰이 행진을 금지시켰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보면 1항에 ≪관할경찰서장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2항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해서 우리 경찰들은 집회 참여를 가로막거나, 허가된 집회장소에 난입하는 등, 별다른 이유없이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부쩍 늘어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항의를 받아왔다. 특히, 20일 진행됐던 ≪부시방한 반대 범국민대회≫에서는 모형 성조기를 불태운다는 이유로 집회장에 난입해서 여성, 농민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는 불상사도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대해 이천재 서울연합 상임의장은 ≪미국민이 성조기를 불태워도 별문제가 안되는데, 바다건너 한국에서는 성조기를 불태우면 범법자 취급을 받는다≫며 한국경찰의 미국에 대한 예속과 과잉충성을 꼬집었다.

한편, 이날 시민대회에는 18일 삼성동 주한미상공회의소를 점거했던 아주대 신송옥 학생과 일본에서 부시방일반대투쟁을 전개했던 일본 AWC(미 · 일의 아시아 지배침략을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 사꾸다씨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신송옥 학생은 ≪처음 들어갈 때는 고민이 많았는데, 나오고 나서 지지해주는 시민을 보면서 우리의 투쟁이 정당함을 알 수 있었다≫고 밝힌 뒤, ≪정당한 투쟁을 한 다른 학생들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사꾸다 씨는 ≪일본에서도 부시방일에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진짜 악의 축 미국에 대항해 한일양국 국민이 힘을 합쳐 투쟁하자≫고 발언해 참가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날 시민대회의 결의문을 통해 주최측은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미국부담 △미군기지내 아파트 건립반대 △부시방한 결과 규탄 △용산미군기지 전면반환을 주장했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2/23

한총련, 미 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무산

지난 18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를 점거했다가 석방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미 대사관과 미상공회의소가 18일 점거농성을 테러로 규정 · 점거자들의 인적사항을 요청하고, 미상의 직원을 납치 감금하려 했다는 억지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며 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오늘(23일) 낮 12시 15분경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점거결사대 석방대표단≫의 남녀 대표 2명이 종로구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전달하려 했으나 미 대사관을 경비하던 경찰병력 100여 명이 앞을 가로막았다.

권광표(경기대 3), 신송옥(아주대 3) 씨 등 학생 2명은 ≪경찰이 통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비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오늘은 토요일이라 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든지 정문 밑에 (서한을) 던져 놓으라≫며 학생들을 제지했다.

현장에 나와있던 한 경찰간부는 ≪이런 사안으로는 서한을 받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이 미 대사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제지된 학생들은 ≪점거농성이 테러면 노근리 학살은 도대체 뭐냐≫, ≪테러조작 음모 중단하고 전쟁도발책동 즉각 중지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으며, 기자들 앞에서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점거농성 결사대 대표단이 토마스 허바드 주한미국대사관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낭독하고 12시 50분에 돌아갔다.

학생들은 △점거사건에 대한 테러 규정 및 관련자 신원사항 요청 △점거과정에서 미국인 직원에 대한 폭행, 감금, 납치 운운하며 터무니 없는 사실을 날조한 것 △손해배상 운운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며 미 대사의 면담 및 TV공개토론회를 요구했다.

권광표 씨는 ≪금메달 뺏기고도 아무 말 못하고 독극물 뿌린 미군을 조사도 못하는 우리 정부가 답답하다≫며 ≪미 대사관이 항의서한조차도 접수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총련은 내일(24일) 12시 명동성당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후 행동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황방열기자
오마이뉴스 2002/0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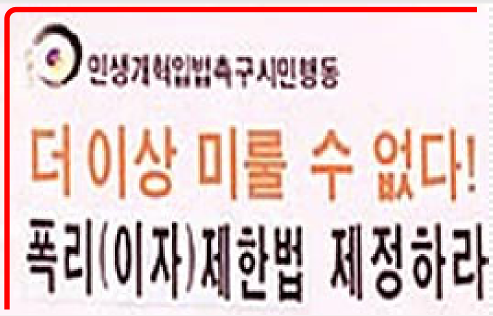
이북, 미국이야말로 악의 축

이북은 23일 딕 체니 부통령 등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북에 의한 위협을 거론하면서 국제적인 압력 행사를 강조하고 있는 데대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야말로 악의 축≫이라고 주장했다.

이북의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통하지 않는 억지 궤변≫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체니 부통령이 ≪악의 축≫론을 근거로 해 이북과 이란, 이라크에 국제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상세히 전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방송은 또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사실적인 근거도 없이 ≪악의 축≫론을 거론하는 것은 대북 압살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유도하려는 ≪흉악한 속마음의 발로≫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이야말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 축 국가≫라고 비난했다. 중앙방송은 이어 ≪미국의 군사적 압살 기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가 이 땅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해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02/02/23



이자제한법 부활없인 사채횡포를 막을 수 없다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신용사회구현 시민연대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앞에서 이자제한법 제정 등의 시급한 현안을 뒤로한 채 파행을 일삼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며 이자제한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채 폭리의 평균이 1백 50%에 이르고, 신용불량자가 3백만명에 육박하는, 신용카드 남발의 폐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는 현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안정을 위해 힘을 쏟기 보단 무책임한 말장난으로 국회를 파행에 이르게 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동당의 신장식 이자제한법 추진위원장은 ≪여야는 정략적 정쟁으로 국민들의 실망이 극에 달했다≫며 ≪여야는 이자제한법 부활 등 민생구현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사회전반에 만연한 고리횡포 근절을 위해 이자제한법 제정 △신용불량등재 남용과 악용을 막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신용카드 남발로 인해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리지 않게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이자제한법≫ 등 시급한 민생현안이 철저히 짓밟히는 장면을 권투싸움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무의미한 싸움에만 힘을 쏟는다면 전당적으로 지역구에서 소속 국회의원 소환파면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5일 국회 재경위는 ≪사채업자를 이자제한을 받는 사채업자와 이자제한을 받지 않는 사채업자 2종으로 나누어 등록하고 이자제한을 받는 사채업자에게 세제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채 폭리를 합법화하는 대부업법을 통과시키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맞냐≫고 규탄하고 지자체 선거, 대

선 등으로 정치 일정이 더욱 바빠지기 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현안인 이자 제한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1일 민사법학회,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소속 법학자-변호사들을 포함한 5백 7인의 법학자-변호사들은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자 제한법 제정 없이는 고리사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며 이자 제한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김세옥기자
시민의 신문 2002/02/22

이총재 수행의원들의 뉴욕 술판 논란

미국 뉴욕 한인주간지 시사겨레 2월8일자

지난달 말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미국 방문을 수행한 전·현직 국회의원과 현지 일부 상류층 한인 유학생들이 뉴욕의 한 술집에서 맥주, 양주 등을 포함, 500만원대에 달하는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인 사회와 네티즌들, 그리고 여야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뉴욕한인회와 현지 교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6박 7일간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일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일정 마지막날인 26일 밤 뉴욕 32번가의 고급 술집에서 일부 상류층 한인 유학생들과 수백만원대에 달하는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26일 뉴욕을 방문중인 이회창총재가 9·11 테러 추모행사가 끝나고 한인 1.5세들과 한미간 정치경제전망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는 동안 한나라당 전·현직 일부 의원 11명이 뉴욕 32번가의 한 고급 술집에서 여성들과 폭탄주 등을 돌리면서 술판을 벌였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신문은 이들이 공식일정을 무시하고 맨하튼 소재 고급 술집에서 11명의 젊은 여성 접대부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들 여성들에게 1인당 팁으로 200불씩 지불됐다고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다던 한 여성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26일 이총재 일행이 9·11 테러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위해 사고 현장인 월드트레이드센터의 ≪그라운드 제로≫를 방문한 이후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술집으로 이동했으며 이총재가 한인 1.5세들과 미국 정치경제간담회 동안 술판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1일 ≪테러대참사 현장에서 ≪계곡주 파티≫라니≫ 제목의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은 방미 기간중 이같은 향락의 자리를 마련한 사실이 있는지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철기자
오마이뉴스 2002/02/22

고이즈미 6개월 버티기 힘들듯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가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도리어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더이상 고이즈미에게 기대를 걸기 힘들다는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된 동시에, 이를 기화로 일본내 정적(政敵)들의 반(反) 고이즈미 공세도 불을 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지는 22일 ≪부시가 겉으로는 고이즈미를 외교적으로 칭찬했지만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면서 ≪고이즈미는 앞으로 6개월을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이 잡지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장을 위해 제대로 개혁조치해 밀어붙였다면 현재의 불황에 대해 고이즈미가 이처럼 수세에 몰리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고이즈미가 일본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잃어가고 있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낼 힘이 없는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일본은 과도한 부채, 잉여시설, 남아도는 노동력 등을 해결하기도 전에 이미 높은 실업률과 기업파산에 경제가 허덕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자민당은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어 고이즈미는 자기 당으로부터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부시 방일 직후 ≪부시조차 고이즈미로부터 일본의 금융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이끌어 내지 못해 이에 실망한 일본의 증시가 대폭락했다≫며 ≪고이즈미가 잽을 피하다가 정통으로 주먹을 맞게 생긴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역시 ≪세계는 더이상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에게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며 ≪일본경제에 대한 유일한 논쟁은 불황이 얼마나 깊고 오래갈 것인가뿐≫이라고 냉소적으로 보도했다.

외부의 시선만 싸늘한 게 아니다. 일본 내부의 시선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고이즈미는 부시가 떠난 직후 한 때 ≪정치적 부부≫라고 불렸던 다나카 마키코 전외상으로부터 ≪고이즈미 자신이 바로 (개혁의) 저항세력≫이라고 통렬한 공개비판을 받았다.

고이즈미가 총리가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다나카 전외상의 이같은 발언이 나온 이후 한때 80%까지 올랐던 고이즈미의 국민지지도가 40%대로 떨어졌다.

이승선기자
프레시안 2002/02/23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 (7)

대표집필자 최성원 /2001년 5월말 발표

1.우리는 왜 이 글을
긴급토론자료로 제출하는가

2.민족민주전선의 세계성과 역사성

3.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과
조직문제

4.반제자주역량의 미군 철거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5.민중적 민주역량의 국가보안법철폐
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 6.민족민주전선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

▶ 7.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정권의 관계문제

8.제안 -6.15공동선언
1주년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자

6. 민족민주전선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 -2

그렇다면 민족민주전선은 지역통일전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항일혁명시기에 조선민족의 통일전선운동사에 이룩된 역사적 경험에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선민족의 항일혁명의 역사적 경험은 통일전선이 승리한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조선민족의 역사에서 통일전선의 승리를 가장 빛나게 이룩했던 역사는 조국광복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국광복회는 **김일성**주석이 항일혁명시기에 결성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었다. 조국광복회는 분산되어 있었던 민족의 반일역량을 반일자주화의 기치 아래 결집하고 조직화했던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었다. 조국광복회의 투쟁사에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역사적 가르침을 받고 있다.

첫째는, 지역통일전선의 핵심을 세우는 문제이다. 조국광복회라는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을 건설하는 핵심역량은 조선인민혁명군으로부터 나왔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조국광복회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 이것은 오늘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해준다. 지역통일전선의 구축은 그 전선을 이끌어나가는 핵심역량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하는 핵심역량은 민족민주전선이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통일전선은 생각할 수 없으며, 민족민주전선이 든든하게 서있지 못하면 지역통일전선도 구축할 수 없게 되며 설령 구축한다고 해도 미약한 운동력이 되고 말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할 핵심으로 든든히 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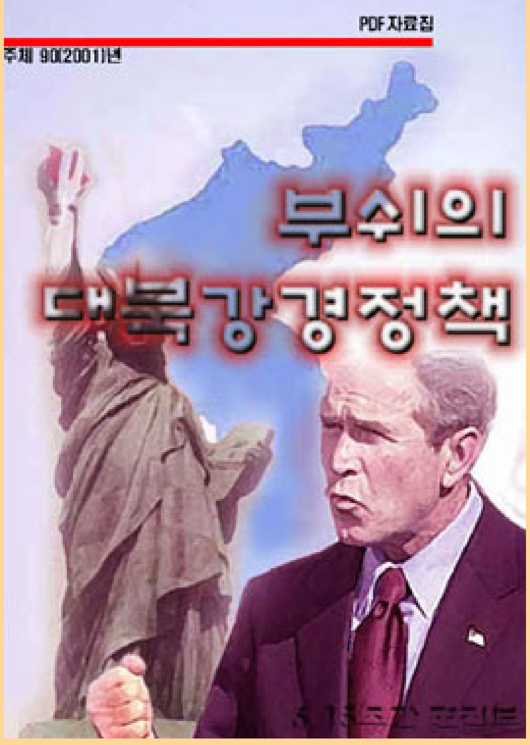
둘째는, 지역통일전선의 역할을 인식하는 문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통일전선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족민주전선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데, 우리는 그러한 그릇된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민족민주전선과 지역통일전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해서도 안 된다.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관변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을 배제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따르는 세력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편협한 경향은 극복되어야 한다. 지역통일전선은 민족민주전선을 그 핵심역량으로 하여 구축되는 폭넓은 전선이다. 민족민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지지・찬동하는 세력이라면 과거를 묻지 말고 어떤 세력이라도 손잡고 통일전선의 길로 나서야 한다. 원래 통일전선운동이란 통일전선에 참여하는 상대에게서 견인・포섭해야 할 측면과 통제・봉쇄해야 할 측면을 정확히 가려보면서, 견인・포섭과 통제・봉쇄를 능숙하게 전개하는 그야말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전선운동이다. 지역통일전선 안에서 친미예속정권을 퇴진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높은 수위의 주장을

➡

광고

PDF자료집

부시의 대북강경정책



노작
3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타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한민전중앙위
5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성토함
7 미국의 무기강매행위를 성토함
8 주한미군철수투쟁에 총분기하자

부시대북정책의 본질
10 부시 차기정권의 북미기본합의문 파기 움직임
11 대북정책에서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는 부시
12 미국가미사일방어체제수립과 그 저의
13 부시행정부 그 실체
14 부쉬의 100일행적
15 배격받는 부시정권의 힘의 외교정책
15 대북정책을 통해 본 부시정권의 호전적 정책
17 한반도를 겨냥한 미군의 새로운 군사전략
18 미제의 무력증강과 전쟁도발책동

기자회견
19 미국에게 조미기본합의문리행의 실제적행동조치 요구
20 미싸일방위체계창설을 즉각 철회하여야
21 주한미군철수는 시대의 급선무적과제

논평
22 랭전식사고와 행동방식으로는 얻을것이 없다
24 클린톤행정부집권 마지막시기의 립장수준에 도달되야 대화재개 가능
25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좌시 할 수 없다

성명
국제사회 반향
반대투쟁

글
41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북침전쟁도발책동
42 배격받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
43 부시행정부와 한반도
45 또다 드러난 지배주의야망

과제
46 반미투쟁은 인류공동의 과제
48 반미투쟁현황과 과제
49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배격하자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50 대북적대시정책은 파국을 부를 것이다

한다든지, 민중의 계급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은 교정되어야 한다.

셋째는, 지역통일전선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문제이다.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는 세력은 지역통일전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대상은 반통일세력이므로 고립・타격하여 소멸하여야 한다. 또한 김대중정권은 북측 정치역량이 구축하고 있는 민족통일전선의 대상이므로 민족민주전선이 김대중정권을 자기의 지역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민족민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남측의 정당, 사회단체들을 지역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는, 통일전선의 강령을 설정하는 문제이다. 지난날 조국광복회는 반일의 기치 아래 반일역량을 결합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었다. 그런데 오늘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반미의 기치를 든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까?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구축되고 있는 민족통일전선은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내걸지 못하였다. 김대중정권이 반미자주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조건에서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반미자주화운동을 전면에 배치한 지역통일전선조직을 건설하기는 힘들다. 반미자주화운동이란 미군 철거투쟁으로 전개되는 운동인데, 남측에서 미군 철거투쟁의 기치를 들었을 때 결집될 수 있는 역량은 현재 민족민주전선에 포괄되어 있는 역량으로 한정된다.

그렇다면 지역통일전선은 무엇을 자기의 강령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민족대단결의 강령이다. 지역통일전선은 무엇을 가지고 민족대단결을 실현할 수 있는가? 그것은 6.15공동선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통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력으로 존재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과 연방제 통일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운동력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민족통일전선이나 지역통일전선은 그것을 자기의 전략목표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민족통일전선과 지역통일전선은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세력과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세력이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하여 결합된 운동력으로 존재해야 한다.

다섯째는, 지역통일전선을 조직화하는 방도의 문제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조국광복회는 일제의 악랄한 탄압 속에서 반일투쟁을 벌어야 했으므로 비합법조직으로 조직되었으며 또 그렇게 활동했다. 그렇다면 지금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조직을 비합법조직으로 건설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통일전선조직은 어디까지나 합법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7. 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정권의 관계문제 -1

김대중정권의 3대 성격은 친미예속성, 반민중성, 개혁성이다. 김대중정권의 친미예속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의 정치적 의도와 요구에 따라서 그 정권이 수립되었으며, 또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제국주의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지배와 수탈에 대해서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예속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김대중정권의 반민중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김대중정권이 남측 민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희생하면서 남측 독점자본의 요구와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국주의세력의 경제적 수탈이 더욱 전면적으로 집중적으로 자행되어 사회 전반의 물질・경제적 조건이 날로 피폐해지고 남측 민중의 생존권은 더욱 짓밟히고 있는 데도 김대중정권은 민중의 요구와 이익을 외면하고 있으며 생존권을 쟁취하려는 노동계급과 농민계급의 투쟁을 폭력으로 짓누르고 있다.

김대중정권의 개혁성이란 무엇인가? 그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일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개혁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일반 민주주의적 개혁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김대중정권이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일반 민주주의적 개혁성이 곧 민중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정권이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달리 일반 민주주의적 개혁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남측 민중이 그 개혁성조차 외면하고 있는 까닭은, 제국주의세력과 남측 독점자본의 집중적인 수탈에 짓밟히고 있는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서 일반 민주주의적 개혁성은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중생존권 투쟁의 시각에서 보면,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김대중정권 사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김대중정권은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을 가진 정권은 민족민주전선과 적대관계에 놓이게 된다. 지금 남측 민족민주전선 일부에서 친미예속적이고 반민중적인 김대중정권을 퇴진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기해야 할 물음은, 민족민주전선이 김대중정권의 성격을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 그리고 일반 민주주의적 개혁성에 국한해서 파악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김대중정권이 제4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제4의 성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북측에 대한 화해・협력성을 말한다. 바로 이 화해・협력성은 민족민주전선이 김대중정권과 역대 군사독재정권들 사이에 차별성을 두어야 할 근거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김대중정권의 화해・협력성이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을 가리우는 위장막 정도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성격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화해・협력성은 위장막이 아니라 제4의 성격으로 실재하고 있다.

(내일 계속됩니다)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민족대단결과 연방제통일 방식에 관한 논의 (2)

나와 주체사상과의 대화

주: 무엇보다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자주성에 대한 민족의 본성적 요구로 일관된 독창적인 민족대단결 강령입니다. 그것은 또한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단결하여 통일운동의 주체로 결집되게 하는 가장 폭넓고 심도있는 민족단합의 대헌장입니다. 또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최근 정세발전의 요구에 부합될 뿐 아니라 일단 손을 잡은 사람들과는 영원히 함께 손잡고 나가기 위한 항구적인 정치연합강령입니다. 통일을 위한 투쟁의 현시점에서만 단결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다음에도 조국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가기 위한 항구적인 정치연합강령이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입니다 라는 고전적 정식화를 주시고 민족의 대단결은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하며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또한 민족자주의 원칙이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라는 정식화를 주시고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사상과 체제,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고 강조하시었습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그 위력은 민족의 대단결에 있습니다. 주체적 통일역량이 튼튼히 마련될 때 조국통일위업의 승리가 확고히 담보되는 것입니다.

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은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구성원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세계의 진보적 인사들도 그 독창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의 구성원인 이남의 ML론자들이 그것을 왜곡하고 시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의 왜곡된 주장은 어떤 것인지요.

주: 이남의 일부 ML론자들은 전민족대단결에 의하여 조국을 통일할 데 관한 주체적 견해를 우경적이고 개량주의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조국통일문제는 계급해방문제, 노동자정권수립에 관한 문제이므로 전민족대단결에 의하여 그것을 이룩한다는 것은 우경이며 개량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좌경적 궤변입니다.

조국통일문제는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문제이며 민족분단의 비극을 극복하는 문제입니다. 전민족대단결에 관한 이념은 조국통일의 본질과 민족적 성격에 관한 과학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민족구성원의 각이한 요구와 지향을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에 복종시킬 데 대한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민족대단결의 이념에는 남과 북, 해외에 사는 각계각층 민족구성원의 공통적이고 근본적이며 사활적인 요구와 이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족대단결의 이념은 주체세력과 사대매국세력, 통일세력과 분열세력, 민주역량과 파쑈역량과의 치열한 민족적, 계급적 대립과 투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념입니다.

전민족대단결이 실현되면 사실상 조국통일위업이 실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족대단결의 이론을 우경으로, 개량주의로 몰아붙이는 주장은 계급투쟁결정론적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대하는 좌경적 견해이며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의 형성과 공고발전을 가로막으며 각계민중을 전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결집시킬 수 없게 하는 반통일적 망발이며 사실상 이남변혁운동도 올바르게 할 수 없게 하는 기회주의적 궤변입니다.

(내일 계속됩니다)